

그리스도왕 대축일

기도서 482 편

제 1 독서: 다 니 7, 13-14
제 2 독서: 목 시 1, 5-8
복 음: 요 한 18, 33b-37

숲 정 이

발행권인쇄 천주교전주교구 홍보관 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2

□ 강론



그대는 명심하라

김 기 수 신부

명심보감의 치정편에 의하면 “벼슬에 임하는 법도는 오직 세가지가 있으니 청렴과 신중과 근면이 그것이다. 이 세가지를 알면 몸가질 바를 알리라”.

또 “위에는 지시하는 이가 있고 중간에는 이에 의하여 다스리는 관원이 있고, 그리고 아래에는 이를 따르는 백성이 있다. 백성이 바친 벼로 옷지어 입고, 곳간에 거두어 둔 곡식으로 밥지어 먹으니 너희의 봉록은 바로 백성들의 기름인 것이다. 아래의 백성을 학대하기는 쉽지만 위에 있는 저 하늘은 속이기 어려운 것이다”.

또 유안례가 백성에게 임하는 도리를 묻자 “백성으로 하여금 각각 그들의 진정을 표달할 수 있도록 하라” 하고, 다음 부하 통솔의 도리를 물으니 “자기를 바르게 함으로써 자기 밖의 것을 바르게 하라”고 서술하고 있다.

즉 치자(治者)는 청렴하고 신중하고 근면할 것이며, 백성의 녹을 먹으니 백성을 학대하지 말고, 자기의 고집보다 천물에 의해 정치를 하며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먼저 자기를 바르게 하라는 뜻이다.

참으로 깊게 명심해야 할 귀절이다.

그러나 현 시대의 많은 왕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과연 명심보감의 말을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 아니면 이 세상의 왕국이 유한하고 허무한 줄 알면서도 마치 무한의 세계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듯한 자아도취의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

치자(治者)들에게 묻고 싶다.

오늘의 복음에서 처럼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요? 백성을 위한 왕이요? 또 많은 백성들이 진정으로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과연 어떠한 대답이 나올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다. 왜? 바로 그분은 가난하고 비천하고 보잘것 없고 이 세상에서 외면해 버리는 이들을 더 사랑하셨고, 백성의 외침을 귀담아 들으셨고, 자신의 목숨까지 당신 백성을 위해 바치셨던 분이셨기 때문이다.

바로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구원과 세상에 평화, 사랑 등을 주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 왕국을 갈망하며, 그리스도 왕을 추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자들은 명심하라.

그리스도 왕의 생활과 말씀을, 또 인간 세계에서는 앞서 본 명심보감의 내용을 깊이 마음 속에 간직하지 못할 때 백성들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음을……

(우주 본당 주임신부)



추수감사제와 아파트와 실명제

□ 잠꼬대 같은 헛소리

아파트 투기 때문에 일어나는 뜨거운 열기로 금년에는 첫눈마저 늦는 모양이다. 하루 하루를 보내기가 고달픈 서민들이야 연탄걱정이나 없으면 그만이었다.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붙던, 전패가 스물 두번이 되었건, 해가 서쪽에서 뜨건 별관심이 없는 상황들이다. 실명제만해도 그렇다. 제발 서민들의 눈이 머는 제도(失明制)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고, 이름을 뺏기는 제도(失名制)가 아니기를 빌 뿐이다.

□ 가슴으로 말하는 소리

복지사회란 누구든지 노력한만큼의 합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말한다. 정직하게 노력하여 맘껏만큼의 댓가가 주어지는 사회를 말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사회란, 비록 공인된 경기중에 일어난 사고로 상대방의 생명을 잃게 했어도 가슴을 치며 ‘내가 할 일이 무어냐’고 겸손하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를 말한다. 생명의 존귀함과 인간의 존엄성을 아는 사회를 말한다.

우리 사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들이 무엇을 했던지 맘을 풀렸다고 강변한다면, 누가 도둑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얻고자하는 자리를 얻기 위해 알게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자는 또 얼마나 많은가? 우리 모두 자신을 되찾는 인간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의 순진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죽음을 묵상하는 이때에 새로운 삶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주교구 가톨릭 농민들이 추수감사제를 갖는다. 땅과 정직하게 대화하며 우리의 식량을 생산하기에 맘을 풀린 그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그들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한탄한 소리에 귀를 좀 열어보자.

숲 정 이 산책



밭파는 사람은 모두 모이라!

□ 그리스도왕 대축일

평신도의 왕지

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며 교회력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다. 교회가 이 마지막 주일을 그리스도 왕 축일로 정하신 뜻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 왕국 건설에 힘써야 할 신자들의 의무를 새롭게 일깨우고, 교회가 항상 의식하고 있듯이 이 세상이 삶의 종착점이 아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기다리는 재림의 때를, 그때에 예수께서 전권을 가지고 오시는 왕이심을 선언하는 것이다.

첫째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 왕국의 백성이 된 신자는 그분의 왕지에 참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순명하시고 들어 올림을 받아 아버지에게서 하늘나라와 세상을 통치하는 권한을 받으셨다. 주께서는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주시어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워 교회를 다스리고, 봉사하게 하셨고, 같은 통치권을 사도 단에게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와 생명의 나라요, 은총과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인 당신의 나라가 신자들을 통해서 더욱 확장되기를 바라고 계시며, 이 나라에서 하느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신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고,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노동 각 분야에 걸쳐 그리스도의 정신을 침투시키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재건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피조물 전체의 깊은 본질과 그 가치와 하느님의 찬미를 위한 그 목적을 인정하고 세속 활동을 통해서도 보다 성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 주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젖을 것이며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누리며 스스로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로써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가난과 겸손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기가 받은 은혜와 직책에 따라 신앙을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하느님 왕국을 건설하여 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정신이 생각과 끝수를 지배하게 될 것이며, 사모하는 주님의 재림을 선행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희망할 것이다.

“주권과 영화와 나라가 그에게 맡겨졌다.” 그분은 임금으로서 만민에게 봉사하고, 또 온 세상 사람들은 비록 조상과 배경이 다양하지만 모두가 그분의 신하가 될 것이다.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한 왕국을 이룰 것이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환 영(幻影)



장 크리스티나

고즈넉한 프락에 내리는
시린 저녁 그림자

천년의 기도 속에
응어리되어
하나, 하나씩 울트던
우리의 긴 이야기들.
한 생애 못다한
잃어버린 언어
뜨겁던 가슴에서
서서히 식어가는
욕망의 날개
우리의 기진한 감정도
망각 저쪽의 눈 속으로
빠져가던
언제나 외길

그 속에서도
섬광처럼 스치는
아! 아!
그리움! 태초의 빛그리움이어!
모두가 훌훌히 떠나가 버린 밤,

등불 밝힌 영혼의 창 향해
표류하는 裸木.

그러나 가는 길엔
언제나 맨손인 것을!

『위령 성월』-군산 문예동 천주교회

어린양(어린이 후보)을

공소 어린이들에게!

전주 교구 주일학교 어린이는 1만명을 넘는데 교구에서 발행하는 어린양의 발행 부수는 3천을 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의 어린이들은 전혀 어린양을 받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상 어린양은 교리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공소 어린이들에게 더욱 필요하다. 어린양 편집부에서는 공소 어린이들에게 어린양을 보내 주실 독지가를 찾고 있다. 뜻이 있으신 분은 교구청 홍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⑥ 0042

□ 가을 관광
안내 상담

전 일 관광

전화 ⑥ 6666~8

제주도·설악산·한려수도

* 유치원용, 교재·교구

중앙 교육사

전화 (72) 1891번

이 승 호(다마소)

위치:전동 터미널 앞

독일제 치질약
에이널 좌약 입하

사마귀 제거약
베루말 재입하

시민약국

4-0009·3-3338

약사 김병익(마벨로)

금·은·보석·시계는

금 보 장

장(방지거) 채(마리아)

전주 남문영

(대지목욕탕 입구)

전화 6-4989(사구팔구)



□ 4지구 성가 경연대회

지난 14일 오후 2시 제 4지구 중·고등학교생들은 중앙 본당 성당 안에서 성가 경연대회를 가졌다. 이날 7개 본당에서 8백여명의 학생이 참가 성황을 이루었다.

각 본당은 지정곡(은총이 가득한), 자유곡 2개의 합창곡을 불렀고 특별 출현으로 셀 회원 및 제들의 중창이 있었다. 전동이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그동안 성가 경연대회를 적극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특히 박 인호 지도신부님께 감사사를 드린다.

□ 관촌 공소에 30만원 성금

오랫만에 찬 바람에 섞여 온 따뜻한 소식이었다. 모두 다 제작기 제 본분만 하면 된다는 무관심을 극복한 손길이다. 외인 가정에서 숨은 신자생활을 하시는 한 데레사씨께서 가톨릭 신문의 기사를 읽고 성금 30만원을 보내오셨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도 시간과 생활의 자유가 없어 기도와 성서를 읽으며 신자생활을 굳히시는 데레사씨께서 하느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성가정을 이루시길 기도해 드리자.

□ 고창 용반 보전진료소에 수녀님 파견

지난 16일 무의촌인 고창군내 용반 마을에서는 보전진료소 개소식이 있었다. 신자 한 명 없는 이 마을에서 미사로서 시작된 개소식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성체회 수녀님들의 성가소리는 더욱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듯 하였다.

여러 신부님들과 군 기관장들이 참석한 개소식은 이 마을의 대경사로 보여졌다. 진료소장으로 일하게 되실 문 정례 수녀님께 힘찬 격려의 박수와 영육간의 큰 수확 거두시길 기도드린다.

□ 로사리오회(내무공무원) 연수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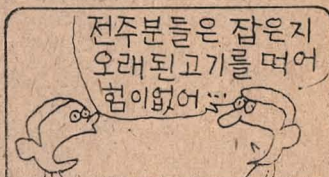
사회와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자 도내 내무 공무원 신자들이 뜻을 모아 로사리오회를 발족한지 만 2년이 되었다. 이번 27일과 28일 양일간 “너희는 은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제로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로사리오회 회원 뿐만 아니라 모든 내무공무원 중에 신자 또는 예비신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초청하고 있다.

주교님의 개최미사로 시작되는 이 연수회는 진지한 기도의 분위기 속에서 2년 동안의 회의 진전을 반성하고 가톨릭 사회인으로서의 자세를 재다짐하고자 한다. 또한 주교님, 신부님, 지사님, 내무공무원 간부님을 모시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일시: 27일~28일(27일 오후 4시30분까지 등록), 장소: 전주 가톨릭 센터

회비: 전주시-6천원, 기타-5천원(숙식비 포함)

요심이 (485) 김병오



□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국내 최초로 시설

밤 고 눈을 편 하고 보호하는 시원하게

보안당 센타

절에서나 잠에서나 정성을 다해드립니다.

구 역전 오거리 전화 ③ 3032

윤(베드로) 종선

□ 신장 개업

신 영 양 복 점

전주시 고사동 1가 (전북신문 사거리-백제 화랑 중간)

김 기 완(토마)

※ 교우님 특별 우대

정화조(수세식)

일반 변소 청소업

(주)전북기업사

전화 ② 2740 8773

배 남 식(토마) 육 태 식(토마)

□ 마춤·대여

웨딩드레스 전문

신부화장, 꽃(부케), 드레스부속 일절, 신부 야외 촬영

유 순 레(가타리나)

전화 72-2347

전주 서서학동 교대부속 국교 정문옆

전주 꽃 직매장

진선미 꽃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여

전화 ② 2628

이 마리아(명자)

범 락도(덕배)

□ 각종 신발 도산매

새 마을 신집

숙녀화·아동화·특수화

남부시장 제일새마을금고 앞

김 문식(베드로)

금·은·보석·시계

결혼예물을 하시는 교우에게는 혼배반지를 기념으로 기증함

보 석 장

군산경찰서 전북은행 앞

전화 ③ 6603

한 철 재(비오)

컴퓨터를 배우시다!

프로그래밍·키판치 과정

대상: 고졸이상의 남·녀

개강: 매월 10일

전주 컴퓨터 학원

문의전화 ② 2805번

전북은행본점튀아리탕제과옆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82년 추수감사 및 농민대회 : 22일 11시~오후 4시, 장소-덕진분당
3. 4지구 교리교사 연합회 정기총회 : 22일 오후 6시, 장소-전동분당
3. 교구 참사회의 : 24일 <수> 오전 10시
4. 군산교도소 영세식 : 25일 <목> 오후 2시
5. 로사리오회(내무공무원) 연수회 : 27일 <토> 오후 4시 30분, 장소-가톨릭센터
6. 중·고 지도자 모임 : 21일 예정이었던 정기총회를 12월초로 연기합니다(사후 통보함)
7. 12월 금요 성경 강좌 안내 : 강의내용-사도행전

(중앙)

전화 ⑥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수석 보좌 박인인
 사도 회장 김희진

- ※ 성경읽기 : 목시목 14~22장
1. 프란치스코 3회 1일피정 : 28일 9시부터 중앙성당
 2. 합동연도 : 28일 공식미사 후
 3. 레지오 피정 : 12월 4일~5일, 장소-중앙성당
 4. 성탄 판공 : 11월 30일-진복, 서노, 12월 1일-인후 2일-금암, 태평, 3일-고사, 경원, 중노, 4일-기타, 학생, 시간-오전 10시~12시, 오후 7시~10시
 5. 공소미사 : 3시
 6. 병자방문 : 23일
 7. 신축현금 신입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5만원-장은순·여운이·이옥자·문익자·양병남·김재권·노원규·권철순·이이상·이순자, 10만원-이명·차학춘·김정옥·오복순·홍헌식·김정숙·이광열·김진순·허정옥·방지거3회, 30만원-성원표·정은희·주남준, 20만원-이동숙·이영주·한복순·김태임·김오성·강삼진, 100만원-유영철, 50만원-이길우·정오성·강삼진, 15만원-김종래·김명순·전길례, 11만원-김명옥, 2만원-이춘선·도순자·홍영순, 3만원-정봉년·김옥춘·하복례·한정순·박준철, 1만원-이길봉·안묘인, 6천원-전춘자, 총누계-103,203,000원

□ 지난주 봉헌금 : 720,120원 교무금 : 626,500원

(노송동)

신부 ⑥0969, 보좌 ②7032

주임 신부 김용태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1. 사도회 상임위원회·애령회 총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축! 박신부님 영명 : 30일(화) 많은 기도 바랍니다
3. 레지오단원 피정 : 27일(토) 오전 10시~오후 5시
4. 형제회 1일피정 : 29일(월)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5. 가을 판공성사 준비합니다 : 신부님과 면접하세요
 시험범위-(1) 오세오경 (2) 오백성사 새기도문 암송
6. 유아세례 : 매일 마지막주(화) 어머니 미사 직후
7. 감사합니다 : 사제관에 카세트·커피, 수녀원에 미성
8. 차주의 전례담당
 새벽미사 : 해설-은경순, 독서-①서준교 ②문정숙
 공식미사 : 해설-이종관, 독서-①박태부 ②김제정
 저녁미사 : 해설-박은경, 독서-①박환준 ②박민숙
 공식미사 : 기도담당-이홍재·최명자

□ 지난주 봉헌금 : 325,282원 교무금 : 357,00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김봉희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양상열

1. 오늘은 분당 애령주일입니다
2. 예언자의 모후 뿌리아 영축목회 : 27일 오후 2시
3. 1인 1단체 가입 : L.M. 부녀부, 성가대, 진복회, 반석회, 청년회
4. 각 단체에서는 보고서 금주까지 사무실에 제출
5. 반석회 월례회의 : 28세 이상 신자분 참석 바람
6. 금년 판공성사 : 해당구역 방문지, 평일 저녁미사 후
7. 성모회 월례회의 : 할머니들 모임
8. 예비자 교리안내 : 주일 11시-보나수녀님 지도
 금요일 저녁 8시-보좌신부님 지도

□ 지난주 봉헌금 : 475,350원

(복자)

전화 ⑤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가정방문 : 23일(화)-진복3·4번, 25일(목)-진복5번
3. 전화번호 변경, 신설, 주소변경 : 사무실에 연락 바람
4. 어머니 성가대 모임 : 금주 토요일(27일) 오후 3시
5. 금주전례 : 해설-안경례, 독서-①정동민 ②천 건

차주전례 : 해설-최정순, 독서-①이갑진 ②김인석
 □ 지난주 봉헌금 : 382,27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명환
 사도 회장 김인규

1. 할머니 모임 : 오늘 공식미사 후
2. 교무금 납부 : 올해도 저물어 갑니다. 미납하신 분들께서는 속히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3. 축! 중·고생 성가경연대회 2등 : 축하파티 있음
4. 성탄 성가연습 : 매일 오전 10시30분, 성가대원 참석
5. 가정방문 : 4번-23일, 기타번-24·26일
6. 차주전례 : 독서-①박정준 ②정형석

□ 지난주 봉헌금 : 238,430원 교무금 : 193,500원

(술정미)

전화 ⑦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⑨567 사도 회장 김수립

1. 성모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예비자교리 : 공식미사 후, 수요일 오전 9시와 오후 7시30분
3. 성령세미나 : 12월 1일 오후 7시30분~12월 5일 참가비-1인당 3천원
4. 결집성사 : 12월 12일 공식미사 중
 교리-11월 28일 오후 7시30분~30일 오후 7시30분
 12월 6일 오후 7시30분~10일 오후 7시30분
 참고-12월 11일 오후 8시
5. 금주전례 : 해설-이귀례, 독서-①이원일 ②노재두
 기도-이기호
 차주전례 : 해설-이귀례, 독서-①박병길 ②임병호
 기도-이철수·박병열
6. 미사안내 : 금주-황화순·유봉례·오귀례·오옥동·유희자·반경자
 차주-허옥순·조금주·박봉자·교재마·정복주·인요안나

□ 지난주 봉헌금 : 506,430원

(전동)

신부 ⑥6208, 사무 ③3222, 수녀 ③8347

주임 신부 김병준
 보좌 신부 박병영
 사도 회장 이종두

1. 사도회·성화회 : 공식미사 후
2. 피미시움 : 오늘 오후 2시
3. 글라라 형제회 : 다음주
4. 보좌신부님 부친 회갑 : 22일 오전 10시미사(장수)
5. 견진 : 28일, 22일~27일 저녁미사 후 교리
6. 주일학교 할창발표회 : 11월 27일 오후 7시
7. 주일학교 견진 교리 신청 : 21일 오후 2시, 교무실
8. 가정방문 견정 : 전동-30일~12월 2일, 서교동-3일
9. 축! 4지구 중·고 생가경연대회 최우수상
 ① 중·고생 성가대 발족(다음주 토요일부터)
 ② 중·고 교리교사회 정기총회 28일 오후 2시
10. 차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이준영, 독서-①김동원 ②김창선
 공식미사 : 해설-박중구, 독서-①이영희 ②장금태
 저녁미사 : 해설-김윤주, 독서-①정동희 ②장수철

□ 지난주 봉헌금 : 545,470원

(파티마)

신부 ②0915, 수녀 ②4804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황희상

1. 아치에스 행사 : 오늘 오후 2시
2. 다음주일이 대림 첫주일입니다 : 구세주를 맞아들일 준비를 전례에 따라 열심히 시작합니다
3. 공소방문 : 12월 1일(수) 돌곶지, 9일(목) 두현리
 공소 교우들은 미납된 교무금 판공시까지 완납 바람
4. 각 분과위원회는 오늘까지 83년도 예산편성을 제출
5. 다음주 재경분과위원회를 소집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94,830원 교무금 : 226,000원